



2018년 6월 10일(제879호) 연중 제10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족”

관계는 나, 당신, 우리를 엮어주는 소중한 울타리입니다. 관계가 있기에 삶은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소중한 이들과 함께 하는 가슴 벅찬 따뜻한 여정입니다. 관계는 세상의 좁도 안 되는 작디작은 우리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만들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어찌 보면 관계는 삶의 전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혈연에 매이고, 아이에서 어린이,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동네, 학교, 직장, 나라, 온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고귀한 피조세상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를 있게 한 지난날의 소중한 흔적이고, 지금의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며 완성을 향한 여정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관계가 그 안에 있는 이들만의 이기적인 울타리가 되고 밖에 있는 이들을 갈라 세우는 배척의 표지가 된다면, 비록 그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샘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이에게 죽음의 텃밭에 없습시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혈연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열린 관계에로의 초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는 선언입니다. 혈연의 이기적인 가족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예수님의 참 가족으로 승화할 때 참으로 아름다운 가족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세례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중심은 예수님이요 목표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의 평생 화두로 삼아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중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몸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은 두말할 것 없이, 경천애인(敬天愛人)입니다. 하느님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거룩한 미사 은총으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녀답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며 예수님의 참 가족으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홍승호(베드로) 신부  
맹호(육군 수기사) 상당 주임

- |                |   |
|----------------|---|
| <b>제 1 특 시</b> | 창세 3,9-15   |
| <b>회 답 송</b>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 <b>제 2 특 시</b> | 2코린 4,13-5,1  |
| <b>복음 관호송</b>  | ◎ 알렐루야<br>○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br>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
| <b>특 음</b>     | 마르 3,20-35  |
| <b>영 성 제 송</b> | 주님의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웁니다.                                       |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구한신 타디오



성인명: 구한신 타디오 (具漢善 Thaddeus)

신분: 중인, 복사, 순교자

활동연도: 1844-18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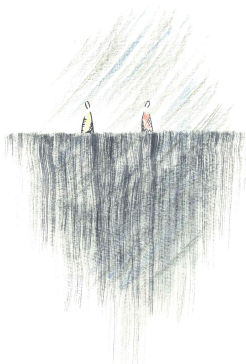
구한선(具漢善) 타대오는 경상도 함안 미나리골(현, 경남 함안군 대신면 평림리)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던 그는 글을 많이 읽었는데, 천주교에 입교하기 전에는 어떤 요술에 빠진 적도 있었다.

어느 날 구 타대오는 우연히 천주교 신자를 만나 교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고는 곧바로 이를 받아들여 그에게 교리를 배운 다음, 성 다블뤼(A. Daveluy, 安敦伊) 주교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후 약 10년 동안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다가 리델(F. Ridel, 李福明) 신부의 복사로 선택되어 거제도 전교에 동행한 적도 있다.

1866년 병인박해가 시작된 뒤에, 구 타대오는 리델 신부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 지내던 중에 진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그곳 관아로 압송되었다. 이윽고 관장 앞으로 끌려 나간 그는 갖가지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또한 옥에 갇혀서는 주요 교리를 설명한 글을 적어 관장의 부인에게 전하였다. 구 타대오의 글을 읽은 그 부인은, 관장에게 그를 석방해 주라고 청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관장은 더욱 화가 나서 구 타대오를 옥에서 끌어내어 혹독하게 매질을 하라고 시켰다. 그럼에도 구 타대오는 ‘아프다.’는 신음 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이에 관장이 화가 나서 ‘제대로 매질을 하지 못한다.’며 형리들을 꾸짖자, 형리들은 ‘제대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더 때리면 그가 죽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관장이 이번에는 구 타대오를 향해 “어찌하여 ‘아프다.’는 소리 한번 내지 않느냐?”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늬으신 어머니가 문밖에 있을 터인데, 만일 신음 소리를 내면 어머니가 이를 듣고 기절하실 것이므로 신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 관장이 “그러면 어찌하여 천주교를 신봉하였느냐?” 하고 묻자, 구 타대오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고 가르치므로 천주교를 신봉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모진 형벌을 당한 뒤, 구 타대오는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형벌로 7일 만에 죽었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22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당신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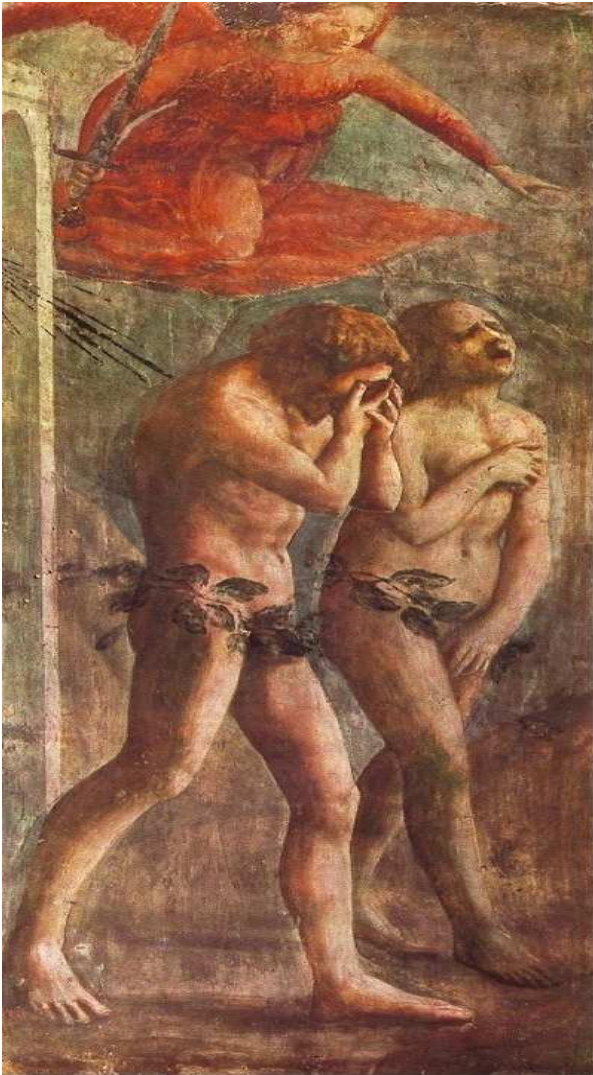
네, 바람.  
길푼한 곳을  
간다 해도.

넌 곁에서,  
넌과 함께  
하늘을  
노래하겠나이다.

비록,  
내 자리  
비천하다 해도,  
넌과 함께라면  
어떠리오.

상화이야기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



마사치오(1401-1428)  
1424-1427년 작  
프레스코화 208 X 88 cm  
브란카치 경당, 이탈리아 피렌체

브란카치 경당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그린 장면으로, 이브가 손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반면에, 아담은 수치스러움과 괴로움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면, 아담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죄이며, 이브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육체적인 죄라고도 분석한다. 하지만, 이브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이들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는 포도가지는 후에 덧칠된 것이며, 복원 후 지워졌다).

이들 뒤에 큰 칼을 들고 있는 천사의 얼굴은 단호한 군인처럼 보이며, 원래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빛나는 은색으로 칠해졌었다고 한다. 이들 뒤에 보이는 마치 에덴동산 입구처럼 보이는 건물 문에는 마치 하느님의 목소리를 형상화하듯, 선들이 그려져 있다.

이들은 순식간에 낙원에서 쫓겨나 거칠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벌판으로 내던져졌다. 이들이 느낄 절망을 우리도 또한 알기에 이 그림에 더욱더 공감할 수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0주일: 중평 103위 성인 최희성 신부

◆ 교구장 동정

- 삼위일체(계통대 근지단)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10일(주일)
- 주교영성모임  
때·곳: 6월 11일(월)-12일(화), 서울 공군회관

◆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

때: 6월 14일(목), 10:00  
곳: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

◆ 군신교단 미사 및 모임

때: 6월 14일(목), 18:00  
곳: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